

CHINA WATCHING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Ajou China Policy Institute
亞洲大中國政策研究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중 협력 한국의 유라시아 특급 구상과의 접목 방안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2015. 7. 27 <제6호>

정책 제언

편승, 적극 참여, 긍정적 역할 기대

- AIB의 극적인 성공은 향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 증대될 것임을 말해 줌.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전 세계적 규모의 장기 사업으로 미국까지도 그 연결망의 일부로 고려하고 있음. 단·중기적으로는 제도와 규범 설정을 놓고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골은 더 첨예하고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향후 외교안보적으로 더 부담스런 상황에 직면할 개연성이 다대함
- 한국은 일대일로 및 아시아인프라 투지은행(AIIB) 사업에 소극적·배타적이기보다는 국가와 지역 간 화해, 협력, 안정, 평화, 번영에 공헌한다는 원칙 하에서 적극적인 편승전략 필요. AIB 부총재 직위 확보에도 노력 경주
- AIB는 여전히 지배구조의 운용,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이견이 존재. AIB가 국제적인 기준에 합당한 조직이 되도록 유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적인 구조로 가지 않도록 내부적인 배려와 안배 추진하여 한국의 적극적면서도 긍정적인 역할 발휘

일대일로 구상의 동북아 확장 추진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접목

- 일대일로 발전계획에서 현재 동북아 지역은 그 비중이 낮게 책정되어 있음
 - » 중국이 장차 한국에 대한 기대치는 낮추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한반도 자체 변수의 영향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전개 예상
 - »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상대적 관심이 줄어들면, 북한이 도발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증대
 - » 중국의 동북 3성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한중이 공동 협력할 필요가 존재함. 한중은 어떻게 북한 변수를 줄이면서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해 연구와 협력을 배가해야 함
- 현재 상태대로라면, 한국 정부의 AIB 참여의 주요 명분인 대북 경제개발, 북방 경제협력에 활용하려는 기대는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수 있음. 남북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의 입장은 북중 접촉과 북중관계 개선에 부정적일 필요는 없음. 한국은 북한 변수의 축소 및 한중간 소통의 강화를 위해 노력

한중 열차페리 연결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를 연결할 새로운 대안으로서 한중 열차페리 연결사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함
 - »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한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동북아 지역으로 확장될 공간을 제공하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새로운 발전추세에 참여하도록 간접적으로 압박할 전략 카드임

한중 열차페리 연결사업

AIB설립과 한국의 참여 결정

- 미국의 명확하고 강력한 반대에서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간 한국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음
- 중국은 AIB 추진 위원회가 구성된 2014년 1월부터 외교채널을 통해 한국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불참 압력도 강화되었음
- 미국과 일본의 반대로 주요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AIB 창설준비는 지난 2015년 3월 12일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가입을 발표함으로써 급물살을 탔
- 영국이 가입의사 밝힌 이후, 독일, 이태리, 프랑스 등이 잇달아 참여의사를 밝혔고,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던 호주 역시 참여의사를 확인.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자연스럽게 3월 26일 참여를 공표함

4.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접목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18일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음

-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힘
-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단철도(KTR)와 시베리아 종단철도(TSR) 연결에 대한 인식 공유. 라진-하산 프로젝트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중국 횡단철도, 시베리아 종단철도, 몽골 횡단철도를 상호 연결한다는 구상
- 남북한내 단절된 철도 및 고속도로 구간을 연결하여 외부의 철도와 접목시킨다는 구상
- 2015년부터 유라시아 친선평급사업,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신설 추진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를 접목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 유지

- 한국 박근혜 정부의 신뢰프로세스 및 동북아 평화구상과 논리적으로 연계. 경색된 남북한 관계 및 동북아 국제관계를 경제, 물류의 소통, 인적 교류 등의 방식으로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포함
- 잠재적으로는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에 필요한 투자 자금의 확보의 통로로서 AIB에 대한 기대치도 존재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최대의 장애는 북한의 경직된 태도임

- 북한 김정은 정권은 당분간 한국은 물론 대중관계 희생도 감수하면서 핵무기 및 그 운반수단 개발을 강화하겠다는 태도임
- 북한이 핵무기 무장 전략을 채택하는 한 동북아의 안보정세는 항상 긴장되고,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과 동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는 한국의 발전을 물론이고, 중국의 동북 3성, 연해주 지역의 발전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냉전시절 중국을 위해 미국을 견제했던 역할에서, 이제는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고자하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응하는 '도발 중심의 전략' 을 당분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미국의 동북아 존재감 강화, 미중, 한중, 한러 관계를 갈등적인 국면으로 이끌 계기를 제공함
- 북한의 전략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한국의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연계하고자 노력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발행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발행인 김흥규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출판권 527-2호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전화 031-219-3861

홈페이지 www.ajoucpa.com

China Watching은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를 전문영역으로 하여 최신 현안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문제 제기

1. 시진핑 시기 새로운 정체성과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의 등장

중국 외교의 정체성 변화

- 중국 외교는 현재 패러다임 변화에 준하는 변화가 진행 중. 그 중심에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이 존재함
- 변화의 요인으로는 우선, 중국의 자아 정체성의 변화가 중요함. 중국 주류 전략사고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발전중인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면서, 전례 없이 중장기적인 '국가대전략'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김
- 중국은 '대륙국가' 정체성에서 탈피하여 '대륙-해양' 국가로 정체성을 전환중이며, '일대일로' 구상은 대륙과 해양을 망라함
- 중국은 더 이상 동아시아의 지역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보고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유라시아의 허브국가' '중앙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음

미중 새로운 단계의 경쟁돌입

- 미국은 2011년 이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남방삼각(미·일·호) 혹은 다이아몬드 안보 제휴체제(미·일·호·인) 형성 및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간-파키스탄-인디아가 연결하는 신실크로드 구상을 실현하려 하고 있음
- 일본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 추진. 하지만 일본의 속내는 보다 복합적(견제에 중점 둔 해징전략)
- 중국은 "새로운 아시아 안보체제수립구상",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처럼 미국을 배제한 새로운 국제 기구의 수립을 제안하였고, 향후 국제규범 영역에서도 미중 갈등이 예상보다 빨리 미중 관계가 새로운 격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함
-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중미 관계를 설정하는 데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대응은 동쪽으로부터 오는 거센 도전에 응전하기보다는 동쪽은 점진적인 대응과 관리(東管), 서쪽은 적극 진출(西進), 남쪽은 새로운 영역확장(南開), 북쪽은 협력 강화(北和) 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2015년이 중대한 전환점일 것으로 보임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발전중인 강대국'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면서, 전례 없이 중장기적인 '국가대전략'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김

동아시아의 지역강국으로서가 아니라 세계를 전략공간으로 보고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는 '유라시아의 허브국가' '중앙국가'가 되고자 하고 있음

예상보다 빨리 미중 관계가 새로운 격량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

시진핑 주석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중미관계를 설정하는 데 일단은 성공
서쪽은 적극 진출

2. 중국의 서진(西進) 전략 전개

중국의 새로운 서진(西進)전략의 핵심은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一帶一路)의 추진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임

- 중국이 잘 체계화된 서진전략을 지니고 있으나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중국 스스로도 지난 화평굴기(和平崛起 → 和平發展), 새로운 강대국 관계(New Great Power Relations → New Major Country Relations) 논란에서 얻은 교훈으로 이를 전략이라기보다는 Initiative 정도로 묘사

중국의 실크로드 구상은 중국의 21세기 국가대전략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발전도상국으로서 '국가대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꿔, 시진핑 시기 들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대전략'을 구상하고 운용하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음
- 이 구상이 추진되기 전까지 중국은 주변국들과 광범위한 해양 분쟁에 휘말려 있었고, 주변국들과 갈등은 증폭되고 중국 위협론이 팽배하는 상황에 직면
-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단계의 경제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조 달러에 달하는 보유 외환의 출구, 과잉설비 및 생산의 해외 이전, 새로운 경제 발전 동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인프라 투자가 어렵고 낙후된 서부지역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필요성과 의지의 발현
- 국내 정치 사회적 안정성 제고 기대
- 외교적으로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 기회 및 유럽,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 이르는 네트워크의 구축과 허브 역할 기대. 중앙아시아 등 서부 주변국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대테러 협력 강화
- 전략적으로는 미국이 지배하는 해상루트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에너지 공급루트의 개발. 그리고 미국 위주의 국제질서와 그 압박에서 출구모색 및 새로운 대안적 질서 제시 기회

중국의 실크로드(일대일로, 一帶一路) 구상과 추진은 2013년부터 공식화되었으며 크게 육상 실크로드경제벨트와 해상 실크로드로 대별됨

- 육상은 국제적인 통로를 이용하고, 실크로드를 연결하는 중심도시를 기반으로 하고, 경제무역 산업지대를 협력플랫폼으로 만들어, 중국-몽골-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중국-중남아시아 등 3개 국제경제협력 회랑을 구축
- 해상은 주요 항구를 포인트로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통로를 공동으로 건설.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 흔히 지칭되는 중국-미얀마-방글라데시-인도-파키스탄-아라비아해-아프리카 연안선과 중국-남중국해-남태평양 두 개의 해상선이 주요 방향
- 이 구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구상의 부재 및 관심의 저하임

3개 국제경제협력 회랑

두 개의 해상선

이 구상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구상의 부재 및 관심의 저하임

'일대일로' 중점 사업으로 정책소통, 인프라연통, 무역창통, 자금융통, 민심상통 등 5통(通)을 제시함

- 중국의 강점인 경제 및 문화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방략적인 측면도 주목됨

3.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AIIB의 설립은 중국이 ADB, IMF 등 기존 국제금융질서의 개정에 실패하면서, 독자적으로 새로운 실크로드 구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기제를 마련하고자 한 것임

- 초기에는 중국 중심이면서 배타적인 성격의 금융기제를 제안하였으나 점차 보다 국제표준에 입각한 다자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의 금융기제로 변모해가는 중임
- 2015년 말까지 57개국의 창립멤버가 모여 설립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지분 및 운영/지배 구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상황임
- 총 1000억 달러 규모를 출자총액으로 하면서, 투표권은 중국 26.06%, 인도 7.51%, 러시아 5.93%, 독일 4.15%, 한국 3.50%, 호주 3.46%, 프랑스 3.19%, 인도네시아 3.17% 수준임
- 총재는 진리췌 전 중국 재정부 부부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투자결정권한을 지닌 이사회, 약간 명의 부총재 및 임원으로 이뤄진 비상주 기구형태로 출범
- 주요 정책결정은 75%의 지지를 요구해 사실상 중국이 거부권을 쥔 형태가 되었음
- 한국은 역대 4위의 투표권을 보유하나, 이사국이 되기 위한 4.5%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이 기제의 설립이 20세기 후반을 지배했던 미영일 연합 금융질서에 종언을 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평가이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강고한 것으로 평가된 기존 금융질서에 심리적인 종언을 고한 전환기적인 사건임

- 향후 위안화 국제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증대할 것임. 다만, AIIB의 성공여부는 아직 속단하기는 이룸